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의 질의 결정요인 :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김현숙** · 김희재*** · 오중환****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생활스트레스의 중요성을 탐구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결혼의 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2009년 “결혼이주여성의 자아 탄력성과 부부 적응”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결혼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결혼의 질에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결혼의 질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생활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결혼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결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지지망의 확충 및 효과적인 지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핵심단어: 생활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의 질, 주효과, 매개효과

I. 서론

최근 한국에서 인종적, 민족적 배경이 다른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현재 한국의 국제결혼 건수는 33,300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10%를 넘어져서 있으며, 이는 1990년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통계청, 2009). 한국의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역시 2002년 1,744건에서 2009년 11,692건으로 7년 동안 약 6.7배나 증가했다. 2009년엔 결혼한 3쌍 중 1쌍이 이혼을 했으며,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이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보다 약 3배 더 많았다. 또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 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illsuk94@hanmail.net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khjih@pusan.ac.kr

**** 뉴욕시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goh@hunter.cuny.edu

한 외국인 아내의 이혼은 5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이혼이 결혼지속기간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갈등이 내재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국제결혼 부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부부의 갈등이나 낮은 결혼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결혼의 질을 탐색해 왔다. 김두섭·이명진(2007)은 국제결혼 부부가 내국인 부부에 비해 연령과 교육수준 등의 차이가 커서 결혼 안정성이 낮다고 하였다. 윤형숙(2005)은 국제결혼 부부가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부부 간 친밀성이 형성되기 어려워 결혼 적응이 쉽지 않다고 한다. 이혜경(2005)은 상업화된 국제결혼의 문제가 부부관계를 계급화하며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김오남(2006)은 부부갈등의 원인을 국제결혼 부부의 문화적 차이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국제결혼 부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종종 인종, 문화, 언어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결혼의 질의 관련성을 찾아 왔다. 그러나 부부의 결혼생활에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외에도 결혼생활에서 배태된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가사일, 자녀양육, 부모부양, 가족의 질병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결혼 관계에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제결혼 부부는 같은 인종/민족적 배경을 가진 부부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충격으로부터 더 취약하다(김오남, 2006). 적어도 배우자 중 한쪽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사회·경제적 자원의 차이와 부족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쉽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와 결혼의 질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에 의하면(Okun, 1996; Bradbury, Fincham, and Beach, 2000; Luke and Carrington, 2000), 스트레스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결혼 적응이 낮다고 한다. 결혼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부부의 상호작용을 억제하게 된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평상시보다 공격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낮은 결혼 적응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결혼 부부가 스트레스 사건에 취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의 해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부부들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연구들은(McCubbin, Thompson, Thompson, Elver and McCubbin, 1998; Story and Bradbury, 2004),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적응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주요 타인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고, 사회적 적응을 높이기도 한다. 특히 배우자의 지지는 결혼생활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Fincham and Bradbury, 1990; Beach and Gupta, 2006).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는 공감, 배려, 사랑, 수용 등 정서적 지지는 높은 결혼만족으로 이어지고(Dehle, Larsen, and Landers, 2001) 스트레스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

물론 모든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사회적 관계의 질과 내용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House, 1989). 국제결혼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해 부부 및 가족 간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크며, 사회적 지지의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 방식의 문화적 차이, 성 차이 등으로(Beach and Gupta, 2006), 배우자나 가족의 지지를 오히려 간섭으로 여기기도 한다(김현숙, 2007). 또한 본국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가까이 살지 않거나,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때문에, 이들의 지지가 결혼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결국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이 바라는 사회적 지지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때 스트레스에 취약한 배우자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의 질(marital quality)

결혼의 질은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 평가로서(Harper, Schaalje and Sandberg, 2000) 결혼만족, 결혼적응, 행복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엔 부부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결혼적응 지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Hohmann-Marriott and Amoto, 2008; Kamp Dush, Cohen and Amato, 2003). 전통적인 부부관계에서 평등한 부부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어느 한쪽의 만족보다는 부부의 상호적응이 중요하며, 따라서 결혼의 질은 두 배우자의 관계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적응을 결혼의 질로 보는 입장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

한 지표들을 사용해 왔다. 스페니어(Spanier, 1976)는 부부간의 일치, 만족도, 응집도, 애정표현도를 결혼의 질의 하위영역으로 제시하였는데,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 나라의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 외 결혼 행복감, 부부의 상호작용(Amoto, Booth, Johnson and Rogers, 2003), 긍정적 결혼경험, 부정적 결혼경험(Umberson, Williams, Powers, Liu, and Needham, 2006) 등이 결혼의 질의 하위영역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결혼의 질 측정은 결혼 만족이나 결혼 행복감 등과 같은 단일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나, 최근에는 부부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연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경성과 한덕웅(2003)은 스페니어(Spanier)의 결혼의 질 개념을 따르면서도, 한국 부부의 현실을 고려한 한국판 결혼적응척도를 개발하였다. 결혼의 질의 하위영역으로 결혼만족, 이혼의도, 부부간 애정, 주변가족과의 관계, 자녀만족, 경제적 만족 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경성 외(2003)의 결혼적응을 결혼의 질 척도로 사용하면서도,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현실을 고려하여 결혼만족, 이혼의도, 부부간 애정으로 한정하여 결혼의 질을 측정하였다.

한편 결혼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개인적, 원가족적(family of origin) 및 두 파트너의 상호작용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이나 성격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은 결혼의 결과(결혼만족, 행복, 이혼 등)들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최근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한 사회적 맥락들(Holman, 2001)과 스트레스(Karney and Bradbury, 1995) 요인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생활의 곤란은 가사, 자녀교육, 부양과 같은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며(Bradbury 외, 2000), 이러한 문제는 부부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결혼의 질 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과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차츰 개인적 특성, 상호작용, 그리고 결혼환경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의 질을 부부의 상호간의 적응과정으로 두고,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일상생활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2. 결혼의 질에 대한 생활스트레스의 효과

스트레스(stress)는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상태를 위협하

는 물리적, 화학적, 감정적 상태로, 주로 부정적 생활사건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최근 스트레스 연구는 중요한 생활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일상적인 생활스트레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DeLongis, Folkman, and Lazarus, 1988; Almeida and Kessler, 1998).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달리 누적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고, 표출 여부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장애나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어 훨씬 위험하다(Stone, Kennedy, Moore and Neale, 1995).

물론 결혼과 가족 연구에서도 결혼의 안정도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일상생활스트레스 요인에 주목해 왔다. 보덴만과 시나(Bodenmann and Cina, 2006)는 부부간 갈등이 위태로운 사건보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사건과 더 관계가 있다고 보았고, 코헨과 브레드버리(Cohan and Bradbury, 1997)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부부갈등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또한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신체적 친밀성과 같은 부부의 애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Hendrick and Hendrick, 2002; Bodenmann, Ledermann and Bradbury, 2007). 하지만 스트레스가 부부간 애정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보덴만과 그의 동료들(Bodenmann, Ledermann and Bradbury, 2007)은 높은 수준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부부관계에 불만족스러운 여성에게는 성적 관계를 덜 하도록 하고, 부부관계에 불만족스러운 남성은 성적 관계를 더 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사건들은 부부관계에서 긍정적 행동은 감소시키고, 부정적 행동을 증가시킴으로써 결혼의 질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3. 결혼의 질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보통 가족 구성원, 친구, 직장동료 등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제공된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Cohen and Hoberman, 2006), 정서적, 신체적, 도구적 그리고 물질적 도움 등이 포함된다(Burleson, 2003).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이용가능성과 질은 개인적 적응과 웰빙에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아 왔다(Cohen, 1988; House, Landis, and Umberson, 1988).

결혼생활의 사회적 지지 중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진 것은 배우자 지지이다. 배우자의 지지는 쉽게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Mickelson, Claffey and Williams, 2006). 배우자는 사회적으로 유사한 가치와 특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Thoits, 1995), 같은 스트레스를 공유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Dehle, Larsen and Landers, 2001) 결혼생활에 있어 배우자의 지지는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배우자 지지 중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는 가족 내 갈등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Adams, King and King, 1996).

정서적 지지는 가정에서의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도구적 지지는 가족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이 가사 외 다른 일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함으로써 결혼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한다(Parasuraman, Purohit, and Gosshalk, 1996). 그러나 배우자의 지지가 결혼생활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핀참과 브레드버리(Fincham and Bradbury, 1990)에 의하면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배우자 지지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부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게다가 인종 간 결혼의 경우, 지지의 방식의 차이로 인해 지지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결혼관계에서 또 다른 지지원은 부모, 형제, 자녀 등 가족 구성원들이다. 이들은 애정과 상호 의무감으로 연결되어 있으며(Ross, 1995; Debra and Williams, 2005), 이들이 제공한 지지는 결혼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견되어 왔다(Frone, Yardley and Markel, 1997).

그러나 부모, 형제, 자녀 등은 중요한 지지원이기 하지만, 관계 그 자체만으로는 지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들도 양육과 돌봄과 같은 지지를 제공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Kessler, McLeod, and Wethington, 1985; Ross, and Mirowsky, 2002) 이들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국제결혼 부부는 다른 부부들보다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지원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며(Luke and Carrinton, 2000; Okun, 1996), 극단적인 경우에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상실하기도 한다(Killian, 2001). 결국 가족이나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배우자의 지지 또한 부부관계의 정도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현대사회로 올수록 공식적, 사회적 지원체계가 확장되고 있으며(Greene, 1983; Logan and Spitze, 1994), 개인은 이전보다 공식적 지원을 제공받을 기회가 더 많아졌다. 결혼이주여성처럼 언어장벽, 문화적 차이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식적 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적응을 위한 정보적 지원이나 부부관계를 향상시키는 상담 등의 정서적 지원은 결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은주의 연구(2007)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 후 적응이나 부부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고한다.

4. 생활스트레스와 결혼의 질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스트레스 사건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져 왔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결혼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두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상관관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Cohen and Hoberman, 2006). 이것은 스트레스 개념에 대한 재정의의 하계 했고, 스트레스와 결혼의 질 간의 관계에서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또 다른 변수에 눈을 돌리게 했다. 스트레스 대처 이론이 대표적이다(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 Longis and Gruen, 1986). 스트레스 대처이론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스트레스의 충격을 완화시킨다고 보았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지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다르다.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할 때만 완충효과가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 스트레스가 결과 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사회적 지지를 통한 간접효과를 합한 총 효과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Cohen and Wills, 1985). 휘튼(Wheaton, 1985)은 사회적 지지의 완충적 역할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작용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두 가지 완충모델인 상호작용적 완충모델(interactive effect buffering model)과 부가적 완충효과모델(additive effect buffering model)을 제시하였다.

상호작용적 완충모델은 전형적인 완충모델로 사회적 지지가 결과변수의 영향을 중재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결과변수에 대해 주효과(main effect)는 없으며, 스트레스 완충효과(stress-buffering effect)만 갖는다(Wheaton, 1985). 부가적 완충효과모델에서 사회적 지지는 억제변수(suppressor variable)로 작용하며, 스트레스의 모든 수준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동원된 사회적 지지는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Wheaton, 1985). 여기서 사회적 지지는 주효과를 보이며 매개변수의 기능을 한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사회적 지지 효과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는 조절변인인 동시에 스트레스 수준에 상관없이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매우 낮다는 가정 하에

생활스트레스와 결혼의 질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생활스트레스와 결혼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생활스트레스 및 결혼의 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 사회적 지지를 두 변인의 매개변수로 설정한 <그림 1>의 연구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내용은 세 개의 잠재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주효과와 생활스트레스와 결혼의 질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에 대한 매개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는 결혼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결혼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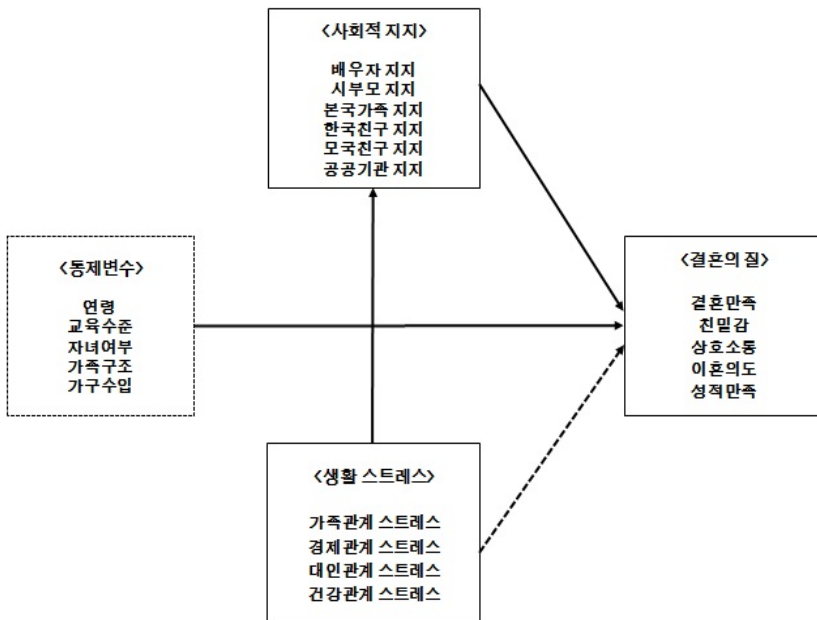
2. 자료

결혼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탄력성과 결혼적응” 조사자료이다. 이 자료는 2009년 6-7월 약 두 달 동안 조사되었으며, 182명의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탄력성, 문화적응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 대처행동, 결혼적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의 질 부분을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법무부의 『2009년 출입국통계연보』를 기초로 하여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국적별로 할당하여 표집하였다. 그러나 국적별 표집 과정은 기초단체로부터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결혼이주여성이 교육 등의 이유로 자주 참가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이주여성인권센터, 사회교육원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지원기관으로부터 명단을 확보한 후 설문지 대상자를 임의로 표집하고, 사전 전화 등을 통하여 설문지를 할 수 있는지를 의뢰한 후 설문지 및 인터뷰를 하였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82개의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조선족 포함)이 76개, 일본이 21개, 베트남, 필리핀, 태국이 63개, 몽골, 우즈베키스탄이 22개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결혼이주여성은 남편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의 69.8%(N=127)는 자녀가 있고, 30.2%(N=55)는 자녀를 두지 않은 상태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대가 41.2%(N=75), 30대가 40.1%(N=73)로 전체의 81.3%가 20-30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35.3%(N=59), 전문대학 26.9%(N=45), 대학 졸업 7.2%(N=12)로 고등학교 이상이 전체의 6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5년 이하 70.9%(N=129), 6-10년 15.4%(N=28),

<그림 1> 연구모형



<표 1>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

변수	정 의	N	%	변수	정 의	N	%
출신국 (N=182)	중국(중국 조선족 포함)	76	41.8	연령 (N=182)	20-29세	75	41.2
	일본	21	11.5		30-39세	73	40.1
	베트남, 필리핀, 태국	63	34.6		40-49세	17	9.3
	몽골, 우즈베키스탄	22	12.1		50-59세	17	9.3
	교육수준 (N=167)	초등학교 졸업 이하	13	7.7	결혼기간 (N=182)	5년 이하	129
중학교 졸업 이하		38	22.8	6-10년		28	15.4
고등학교 졸업 이하		59	35.3	11-15년		13	7.1
전문대학 졸업 이하		45	26.9	16년 이상	12	6.6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2	7.2	가족유형 (N=182)	부부 단독	33	18.1
가구수입 (N=168)	100만원 이하	21	12.5		부부+자녀	87	47.8
	101-150만원	29	17.2		부부+자녀+시댁식구	56	30.8
	151-200만원	39	23.2		부부+자녀+친정식구	6	3.3
	201-250만원	22	13.0	자녀유무 (N=182)	없다	55	30.2
	250만원 이상	31	18.4		있다	127	69.8
가구수입을 모름	26	15.5					

11-15년 7.1%(N=13)로 나타났고, 결혼기간이 16년 이상인 사례도 6.6%(N=12)나 되었다.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부부단독 가구 18.1%(N=87),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47.8%(N=87),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30.8%(N=56) 등이었으며, 친정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도 3.3%(N=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수입의 경우 한 달 평균 가구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2.5%(N=21), 101-150만원 17.2%(N=29), 151-200만원 23.2%(N=39), 201-250만원 13.0%(N=22), 250만원 이상 18.4%(N=31) 등이었으며, 가구수입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례도 15.5%(N=26)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측정

1) 결혼의 질

결혼의 질 측정은 이경성 외(2003)가 개발한 결혼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경성 외(2003)의 결혼적응 척도는 결혼만족, 이혼의도, 부부간 애정(친밀성, 상호소통, 성적만족), 주변가족과의 관계, 자녀만족, 경제적 만족 등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에 초점을 두어 결혼만족, 친밀성, 상호소통, 이혼의도, 성적만족 등의 5개 문항을 결혼의 질의 하위 척도로 사용하였다.

결혼만족은 7개 문항으로 결혼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한다(예. 나는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친밀성은 8개 문항으로 배우자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측정한다(예.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형식적이다). 상호소통은 4개 문항으로 얼마나 자주 배우자와 소통하는지를 측정한다(예.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이해한다). 이혼 의도는 8개 문항으로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한 생각을 측정한다(예. 나는 장래에 이혼할 생각이다). 성적만족은 5개 문항으로 배우자와의 성적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한다(예. 나는 나의 배우자와의 성관계에 만족한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더 높을수록 결혼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하였다. 각 하위 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0.82, 0.88, 0.89, 0.95, 0.66$ 이었다.

2)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 측정은 맥코빈 외(McCubbin, Patterson and Wilson, 1985)의 FL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생활스트레스는 총 18개 문항으로, 가족관계, 경제관계, 대인관계, 건강관계 등의 하위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6개 문항으로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한다(예. 부부간의 갈등). 경제관계 스트레스는 4개 문항으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예. 내가 필요한 만큼 많은 돈을 구하지 못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6개 문항으로 친척,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한다(예. 친척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건강관계 스트레스는 2개 문항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예. 나의 가족 중에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로 아픈 사람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더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하였다. 각 하위 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0.83, 0.85, 0.78, 0.85$ 였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측정은 지멧 외(Zimet, Dahlem, Zimet and Farley, 1988)의 MSPSS(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척도를 사용하였다. MSPSS는 친구, 가족 그리고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의 받은 인지된 지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배우자, 시부모, 본국 가족, 한국 친구, 모국

친구, 공공기관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배우자 지지는 4개 문항으로 배우자로부터 제공된 지지를 측정한다(예. 내가 필요할 때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 시부모 지지는 4개 문항으로 시부모로부터 제공된 지지를 측정한다(예. 시부모는 나를 도와주기 위해 진정으로 애쓴다). 본국 가족 지지는 4개 문항으로 본국 가족으로부터 제공된 지지를 측정한다(예. 나는 나의 문제에 관해 친정가족과 의논할 수 있다). 한국 친구 지지는 4개 문항으로 한국 친구로부터 제공된 지지를 측정한다(예. 한국 친구를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기꺼이 도와준다). 모국 친구 지지는 4개 문항으로 모국 친구로부터 제공된 지지를 측정한다(예. 나의 문제를 의논할 같은 고향 친구가 있다). 공공기관의 지지는 4개 문항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지지를 측정한다(예.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 줄 사람이 있다). 각 하위 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0.88, 0.86, 0.81, 0.73, 0.81, 0.92$ 였다.

4)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통해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연령, 교육 수준, 결혼기간, 가족유형, 가구 수입, 자녀유무를 통제변수로 하여 구조모형에 투입하였다.

4. 분석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졌기 때문에(Karney and Bradbury, 1995), 통제변수로 하여 구조모형에 투입하였다.

생활스트레스와 결혼의 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는 사회적 지지와 생활스트레스가 각각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을 검증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생활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측정 방법은 관찰된 상관관계를 가장 잘 산출해 내고, 최극의 추정치를 갖는 모집단의 모수를 찾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는 χ^2 통계량(p-value가 0.05보다 크면 일반적으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받아짐), NFI(대체로 0.90이상이면 적합도 인정), GFI(대체로 0.90이상이면 우수), RMESA(대체로 0.08 이하면 적합도가 좋음)로 평

가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에 대한 산출은 생활스트레스가 결혼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사회적 지지를 통한 간접효과를 합한 총인과 효과로 분석하였다 (Wheaton, 1985).

IV. 분석결과

1. 생활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의 질 간의 관련성

〈표 2〉에서 모든 선택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표 2〉에서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배우자 지지와 본국 가족 지지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부모와 한국 친구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대체로 남편과 본국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혼의 질에서는 결혼 만족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혼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응답자들이 대체로 결혼의 질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생활스트레스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들이 친척 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다음 선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변수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상관관계의 범위는 0.021-0.769). 배우자의 지지는 모든 선택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시부모 지지는 생활스트레스 중 경제관계 스트레스(-0.166, $p < 0.05$)만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의 질 변수 중에서는 이혼의도(-0.021, $p > 0.05$)를 제외한 모든 하위변수와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친구의 지지는 생활스트레스의 모든 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 만족(0.083, $p > 0.05$), 이혼 의도(0.050, $p > 0.05$)를 제외한 결혼의 질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 친구의 지지는 가족관계(-0.096, $p > 0.05$)를 제외한 모든 생활스트레스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혼의도(0.034, $p > 0.05$)를 제외한 결혼의 질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 가족 지지는 모든 생활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혼의도(-0.108, $p > 0.05$)를 제외한 결혼의 질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지지는 가족관계(-0.025, $p > 0.05$), 건강관계(-0.104, $p > 0.05$)를 제외한 생활스트레스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혼의도(-0.098, $p > 0.05$)를

<표 2> 선택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배우자 지지	1.000														
(2) 시부모 지지	0.436	1.000													
(3) 한국친구 지지	0.230	0.429	1.000												
(4) 모국친구 지지	0.398	0.279	0.481	1.000											
(5) 본국가족 지지	0.502	0.340	0.294	0.531	1.000										
(6) 공공기관 지지	0.320	0.280	0.348	0.366	0.206	1.000									
(7) 가족관계 스트레스	-0.301	-0.079	0.037	-0.096	-0.195	-0.025	1.000								
(8) 경제관계 스트레스	-0.220	-0.166	-0.067	-0.144	-0.179	-0.216	0.399	1.000							
(9) 대인관계 스트레스	-0.362	-0.113	-0.096	-0.198	-0.186	-0.171	0.489	0.483	1.000						
(10) 건강관계 스트레스	-0.294	-0.080	0.042	-0.196	-0.146	-0.104	0.299	0.425	0.457	1.000					
(11) 결혼만족	0.553	0.164	0.083	0.141	0.198	0.257	-0.426	-0.328	-0.548	-0.312	1.000				
(12) 친밀성	0.569	0.226	0.181	0.191	0.286	0.265	-0.340	-0.151	-0.424	-0.183	0.669	1.000			
(13) 상호소통	0.607	0.246	0.198	0.182	0.301	0.248	-0.339	-0.244	-0.366	-0.256	0.660	0.769	1.000		
(14) 이혼의도	-0.247	-0.021	0.050	0.034	-0.108	-0.098	0.396	0.281	0.422	0.207	-0.551	-0.423	-0.269	1.000	
(15) 성격만족	0.549	0.267	0.290	0.347	0.339	0.349	-0.199	-0.158	-0.349	-0.248	0.515	0.633	0.712	-0.140	1.000
M	14.549	10.396	11.462	13.038	14.033	12.324	11.643	11.615	14.066	5.033	22.824	18.577	13.341	14.258	9.434
S.D	3.797	4.208	3.772	3.368	3.658	4.567	6.333	4.340	5.086	2.327	5.983	4.873	4.323	6.151	2.989

주: * p<0.10, ** p<0.05, *** p<0.01

제외한 결혼의 질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는 결혼의 질의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모형의 분석

구조방정식모델링에 의한 매개효과모델(mediating effect model)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로 사용된 3가지 변수의 각각의 지표들이 이론적 개념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

측정모형을 확정하기에 앞서, 개별 잠재변인의 측정도구를 평가하였다. 측정도구는 내적일관성 조사를 거친 후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적합도 지수를 충족하는 항목만을 선정하고, 또한 측정도구의 수정을 위해 표준화 잔차의 절대 값이 4보다 큰 항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측정모형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사회적 지지는 한국 친구의 지지, 모국 친구의 지지가 제거되어, 배우자의 지지, 시부모의 지지, 본국 가족의 지지, 공공 기관의 지지만이 남게 되었다($\chi^2=1.716$, d.f.=2, $p=0.424$, NFI=0.98, CFI=1.00, RMSEA=0.05). 생활스트레스는 모든 항목이 사용되었다($\chi^2=3.004$, d.f.=2, $p=0.223$, NFI=0.98, CFI=0.99, RMSEA=0.00). 결혼의 질은 이혼의도가 제거되어 결혼만족, 친밀성, 상호소통, 성적 만족만이 남게 되었다($\chi^2=5.791$, d.f.=2, $p=0.055$, NFI=0.99, CFI=0.99, RMSEA=0.10).

이와 같이 개별 잠재변인의 측정모델의 타당성 평가를 거친 후 전체 잠재변인의 측정모델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체 잠재변인의 측정모델의 요인적재량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전체 측정모형의 검증결과, $\chi^2=104.764$ d.f.=51, $p=0.000$, NFI=0.889, CFI=0.939, RMSEA=0.076으로 적절한 모델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방법을 통하여 관찰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lambda>0.30$)을 확인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3> 전체 잠재요인 대상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C.R.	p
생활스트레스	가족관계	1.000		0.613		
	경제관계	0.685	0.108	0.613	6.332	***
	대인관계	1.052	0.146	0.804	7.196	***
	건강관계	0.343	0.057	0.573	6.027	***
사회적 지지	배우자	1.000		0.934		
	시부모	0.558	0.093	0.470	5.999	***
	본국가족	0.554	0.081	0.537	6.845	***
	공공기관	0.469	0.101	0.364	4.653	***
결혼의 질	결혼만족	1.000		0.758		
	상호소통	0.854	0.068	0.896	12.512	***
	친밀성	0.916	0.077	0.852	11.898	***
	성적만족	0.501	0.048	0.761	10.469	***

주: 1) *** $p<0.01$

2) C.R. (Critical ratio: 임계치) = 모수추정치/표준오차의 추정치. 임계치는 양측검정 혹은 단측검정에 따라 유의성 기준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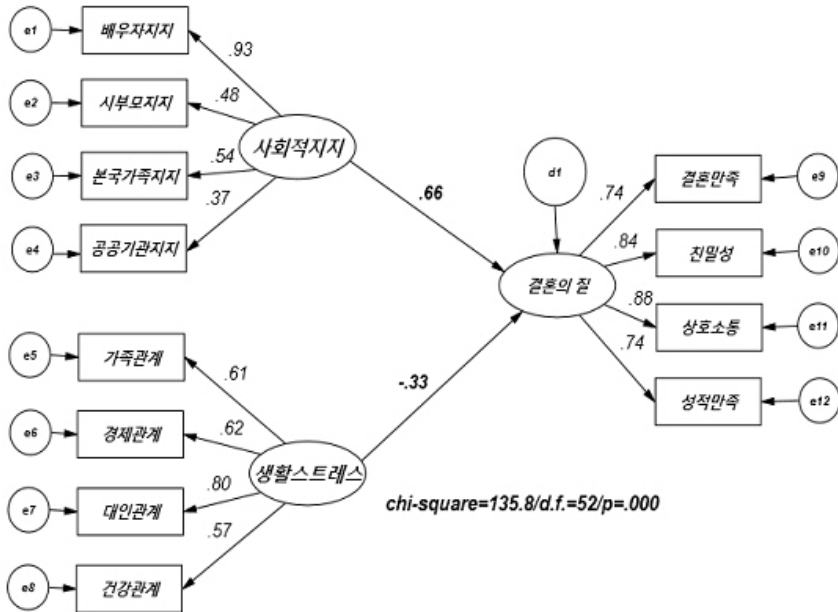
3.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그림 2〉에서 사회적 지지와 생활스트레스는 서로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이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표준화된 경로계수 추정치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와 결혼의 질 경로계수는 0.660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활스트레스와 결혼의 질 경로계수는 -0.326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의 질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 상호작용 없이 독립적으로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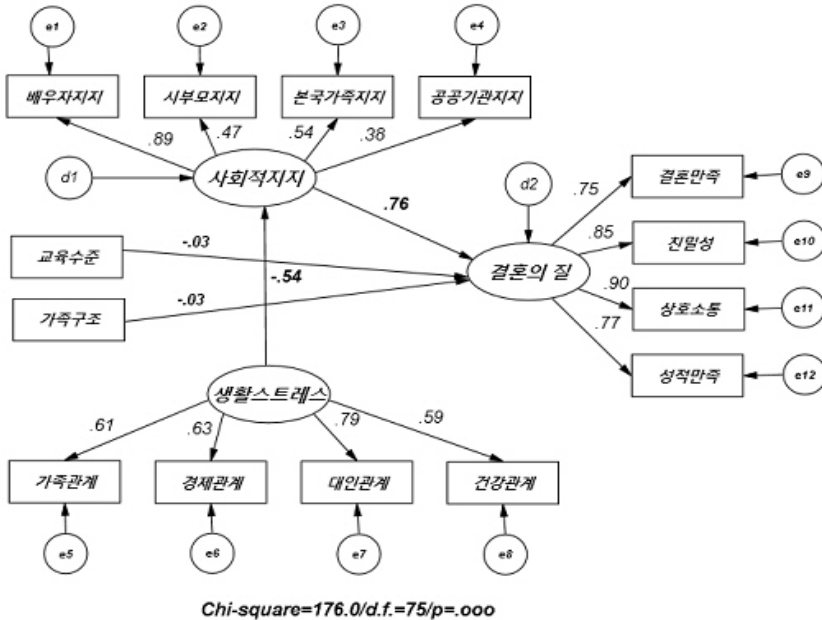
4. 생활스트레스와 결혼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의 질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할 때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가 감소하는가? 이러한 연구가설을 분석하기

〈그림 2〉 사회적 지지와 생활스트레스가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그림 3> 생활스트레스와 결혼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위해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가 결혼의 질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생활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또한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연령, 학력, 가족구조, 자녀수, 가구수입)를 통제변수로 하여 구조모형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모든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투입하였을 경우 적합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분석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학력수준과 가족구조만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림 3>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가 결혼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beta = -0.565$, C.R. = -5.388, $p < 0.01$). 또한 생활스트레스-사회적 지지($\beta = -0.538$, C.R. = -5.226, $p < 0.01$), 사회적 지지-결혼의 질($\beta = 0.764$, C.R. = 8.032, $p < 0.01$)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스트레스-결혼의 질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적이고, 생활스트레스-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결혼의 질에 이르는 경로가 모두 유의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는 생활스트레스와 결혼의 질의 관계

를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인과 효과 [직접효과+간접효과] 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스트레스가 결혼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직접효과)이 -0.565이었던 것이 사회적 지지로 인해 총인과 효과 $[-0.565+(-0.538 \times 0.764)]$ 가 -0.976으로 -0.411 정도 결혼이주 여성의 결혼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제공받을 경우 오히려 결혼의 질이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결혼의 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의 질, 생활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생활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서로 독립적으로 결혼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배우자, 시부모, 본국가족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지와 지원이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배우자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의 질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Frone, Russell, and Cooper, 1992; Fincham and Bradbury, 1990)와도 일치하며, 생활스트레스와 상관없이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스트레스 사건의 경우 가족관계, 경제관계, 대인관계, 건강관계 등의 스트레스 사건이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스트레스가 결혼의 질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Bodenmann and Cina, 2006; Harper, Schaalje and Bradbury, 2004)를 지지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와 상관없이 결혼의 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결혼의 질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적 지지가 오히려 이들의 결혼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시부모, 본국가족, 공공기관 등은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이론적으로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할 경우 결혼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가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생활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반면 생활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적 지지가 감소되어 오히려 결혼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가설은 사회적 지지의 존재와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따라서 생활스트레스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망의 확충과 효과적인 지원과 관련된 사회복지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자원이다(Cohen and Hoberman, 2006).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이주사회의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결혼생활과정에 겪는 어려움에 적절하게 대응할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결혼생활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결혼 해체로 이어지기 쉬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결혼의 질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의 구조를 가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지원을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고려하지 못했다. 게다가 사회적 지지를 구조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지지의 내용을 다루지 못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지의 구조와 기능을 나누어 다루지 못한 본 연구의 한계이다. 또한 본 연구를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만 한정하여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를 전체 결혼이주여성으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보는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주 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 등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사회에 참여를 할 수 없거나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없

는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는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이 결혼생활의 안정적 유지에 머물러 있었다면 본 연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들의 결혼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의 부정적 효과는 사회적 지지의 존재와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사회적 지지망의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제한적 사회적 관계를 볼 때, 정부에서 이들이 생활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식적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가족 등이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들에게도 이들이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족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은 일반 여성들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스트레스관리와 대처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개입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두섭·이명진 (2007)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 안정성” 《한국인구학》 30(3): 33-56.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현숙 (200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유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형숙 (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이경성·한덕용 (2003)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 건강》 8(3): 679-705.
- 이은주 (2007)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가족과 문화》 19(1): 29-60.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9) 《2009년 출입국통계연보》 법무부.

- Adams, G. A., L. A. King and D. W. King (1996) "Relationships of Job and Family Involvement, Family Social Support, and Work-Family Conflict with Job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 411-420.
- Almeida D. M. and R. C. Kessler (1998) "Everyday Stressors and Gender Differences in Daily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3): 670-680.
- Amoto P. R., A. Booth, D. R. Johnson and S. J. Rogers (2007) *Alone together: How Marriage in America is Changing*, Harvard University Press.
- Beach S. R. H. and M. Gupta (2006) "Directive and Nondirective Spousal Support: Differential Effec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2(4): 465-477.
- Bodenmann, G. and A. Cina (2006) "Stress and Coping among Stable-Satisfied, Stable-Distressed and Separated/ Divorced Swiss Couples: A 5-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44(1-2): 71 - 89.
- Bodenmann G., T. Ledermann and T. N. Bradbury (2007) "Stress, Sex,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Personal Relationships* 14(4): 551-569.
- Bradbury, T. N., F. D. Fincham and S. R. H. Beach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964-980.
- Burleson B. R. (2003) "The Experience and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What the Study of Cultural and Gender Differences Can Tell Us about Close Relationships, Emotion,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 Relationships* 10(1): 1-23.
- Cohen, S. (1988) "Psychological Models of the Role the Social Support in the Etiology of Physical Disease" *Health Psychology* 7(3): 269-297.
- Cohen S. and H. M. Hoberman (2006)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hen, S. and T. A. Wills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han, C. L. and T. N. Bradbury (1997) "Negative Life Events, Marital Interaction, and the Longitudinal Course of Newlywed Marria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1): 114 - 128.
- Debra U. and K. Williams (2005) "Marital Quality, Health, and Aging: Gender Equit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0(B): 109-113.

- Dehle C., D. Larsen and J. E. Landers (2001) "Social Support in Marriag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9(4): 307-324.
- DeLongis A., S. Folkman, and R. S. Lazarus (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3): 486-493.
- Fincham F. D. and T. N. Bradbury (1990) "Social Support in Marriage: the Role of Social Cogni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1): 31-42.
- Folkman, S., R. S. Lazarus, C. Dunkel-Schetter, A. DeLongis and R. J. Gruen (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92-1003.
- Frone, M. R., J. K. Yardley and K. S. Markel (1997) "Developing and Testing an Integrative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2): 145-167.
- Frone, M. R., M. Russell and M. L. Cooper (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1): 65-78.
- Greene, V. L. (1983) "Substitution Between Formally and Informally Provided Care for the Impaired Elderly in the Community" *Medical Care* 21(6): 609-619.
- Harper, J. M., Schaalje, B. G., and J. G. Sandberg (2000) "Daily Hassles, Intimacy, and Marital Quality in Later Life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18.
- Hendrick, S. S. and C. Hendrick (2002) "Linking Romantic Love with Sex: Development of the Perceptions of Love and Sex Sca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9(3): 361-378.
- Hohmann-Marriott B. E. and P. Amoto (2008) "Relationship Quality in Inter-Ethnic Marriages and Cohabitations" *Social Forces* 87(2): 825-855.
- Holman, T. B. (2001) *Premarital Prediction of Marital Quality or Breakup*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 House, J. S., K. R. Landis, and D. Umberson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4865: 540-545.
- Kamp Dush C. M., C. L. Cohen, P. R. Amato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Cohabitation and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Change across Cohor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3): 539-549.
- Karney, B. R. and T. N. Bradbury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1): 3-34.
- Kessler, R. C., J. D. McLeod and E. Wethington (1985) “The Costs of Caring: A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and Psychological Distress” pp. 491-506 In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edited by I. G. Arason and B. R. Sarason, The Hague, The Netherlands: Martinus Nijoff.
- Killian, K. D. (2001) “Crossing Borders: Race, Gender, and their Intersection in Interracial Couples”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13(1): 1-31.
- Logan, T. R. and G. Spitze (1994) “Informal Support and the Use of Formal Services by Older Americans” *The Journal of Gerontology* 49(1): 24-34.
- Luke, C. and V. Carrington (2000) “Race Matters”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21(1): 5-22.
- McCubbin H. I., J. M. Patterson and L. R. Wilson (1985)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pp. 81-100 in *Family Assessment: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edited by H. I. McCubbin and A. I. Thompso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 McCubbin H. I., A. I. Thompson, E. A. Thompson, K. M. Elver and M. A. McCubbin (1998) “Ethnicity, Schema, and Coherence: Appraisal Processes for Families in Crisis” In *Stress, Coping, and Health in Families: Sense of Coherence and Resiliency*, edited by McCubbin H. I., E. A. Thompson, A. I. Thompson, and J. E. Fromer, Thousand Oaks, CA: Sage.
- Mickelson K. D., S. T. Claffey and S. L. Williams (2006)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the Link between Spousal Support and Marital Quality” *Sex Roles* 55(1-2): 73-82.
- Okun, B. (1996) *Understanding Diverse Families* New York: Guilford.
- Pasch, L. A. and T. N. Bradbury (1998) “Social Support,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Marital Dysfun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219-230.
- Parasuraman, S., Y. S. Purohit, and V. M. Gosschalk (1996) “Work and Family Variables, Entrepreneurial Career Succ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3): 275-300.
- Ross C. E. (1995) “Reconceptualizing Marital Status as a Continuum of Social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1): 129-140.
- Spanier, G. B. (1976) “Further Evidence on Methodological Weaknesses in the

- Locke-Wallace Marital Adjustment Scale and Other Measures of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403-414.
- Stone A. A., E. Kennedy-Moore, and J. M. Neale (1995) “Association between Daily Coping and End-of-Day Mood” *Health Psychology* 14(4): 341-349.
- Story L. B., and T. N. Bradbury (2004) “Understanding Marriage and Stress: Essential Questions and Challeng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8): 1139-1162.
- Thoits P. A.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 53-79.
- Thomas N. Bradbury, Frank D. Fincham and Steven R. H. Beach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964-980.
- Umberson, D., K. Williams, D. Powers, H. Liu, and B. Needham (2006) “You Make Me Sick: Marital Quality and Health Over the Life Cour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7(March): 1-16.
- Wheaton, B. (1985) “Models of the Stress-Buffering Functions of Coping Resourc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4): 352-364.
- _____ (1999)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US: Springer.
- Zimet G. D., N. W. Dahlem, S. G. Zimet, and G. K. Farley (1988) “The Multi 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2010. 12. 12 접수 | 2011. 2. 26 심사(수정) | 2011. 4. 11 채택]

The Determinants of Marital Quality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 The Importance of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Hyun-Suk Kim · Hee-Jae Kim · Joon-Hwan O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social support was related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quality and stress from life event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The subject of this study included 182 married immigrant women lived in Busa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had a independently significant effect on marital quality. Second, social support had a negative effects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marital quality mediated by social support. In varying forms and degrees, social support may play significant roles in relation to life stress and marital quality, but like married immigrant women, limited social support may be no/low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marital quality. In this article, we examine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related to life stress and marital quality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research.

Key Words: Social support, Life stress, Marital quality, Main effect,
Mediated effect